

新羅 脫解王之 出生地와 移住背景

The Birthplace of King Tarhae and the Background of His Immigration to Silla

| | |
|--------------------|---|
| 저자 (Authors) | 김선숙 Kim, Sun-Sook |
| 출처 (Source) | 인문학연구 16 , 2011.12, 89-117 (29 pages) Study of Humanities 16 , 2011.12, 89-117 (29 pages) |
| 발행처 (Publisher) | 인천대학교 인문학연구소 Humanities Research Institute |
| URL |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ld=NODE06606973 |
| APA Style | 김선숙 (2011). 新羅 脫解王之 出生地와 移住背景. 인문학연구, 16, 89-117. |
| 이용정보 (Accessed) | 삼성현역사문화관 183.106.106.*** 2021/07/22 14:53 (KST) |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 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 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新羅 脫解王의 出生地와 移住背景

김선숙*

I. 머리말

『三國史記』에는 탈해가 신라의 제4대왕으로서 기원후 57년으로부터 80년까지 대략 24년간 재위한 임금으로 등장한다.¹⁾ 『三國史記』뿐만 아니라 『三國遺事』에는 그에 대한 흥미로운 기사가 실려 있는데, 그의 출신 내력과 함께 그가 타국인으로서 신라에 이주하여 왕위에 오르는 과정이 설화적으로 기술되어 있다. 또한 『삼국유사』에는 탈해의 출생지역을 왜 또는 왜국의 동북쪽 1천리에 있는 용성국 또는 瓊夏國, 正明國, 花夏國 등으로 기술하고 있으며,²⁾ 『삼국사기』 역시 그의 출신지에 대해 왜국 동북쪽 1천리땅에 있는 다파나국으로 서술하고 있다.³⁾

이와 관련하여 일찍이 국문학계에서는 사료상에 등장하는 탈해에 대한 설화적인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룬 바 있다.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김열규의 경우는 탈해의 출신지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가락국 수로왕과의 주술경합이라든가 숫돌과 숫을 몰래 숨긴

* 한국학중앙연구원, 1997-sun@hanmail.net

1) 『三國史記』新羅本紀 脫解尼師今條.
2) 『三國遺事』王曆 第四脫解(一作吐解)尼叱今條.
3) 『三國史記』新羅本紀 脫解尼師今條.

일 등에 대해 전자는 즉위의식의 선행조건으로, 후자는 야장이 되는 소위 成匠式的 표현으로 보고 이러한 것들이 모두 제의절차에 해당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⁴⁾ 소재영은 탈해신화에 대해 기본적으로 龍神護國信仰으로 보면서 탈해의 출생국인 용성국을 동해의 용왕국, 용궁으로서 불교적 영향을 받아 그대로 붙여진 서역의 한 지명일 가능성과 함께 신라인으로서 倭地에 살다가 건너온 인물로 보았다.⁵⁾ 윤철중은 비록 탈해의 출생국인 용성국에 대해 미해결상태로 남겨 놓았으나 탈해신화에 대해 기원전 1세기와 기원후 1세기에 걸쳐 경상도 해안에 도래해 온 도래인의 역사적 사실을 반영한 도래신화로 보았으며 탈해가 도래하여 활동하던 무대인 금관국·아진포·토함산·월성 등에 대해서 검토한 바 있다.⁶⁾

한국고대사학계의 경우에는 탈해의 출신지를 대륙계통의 북방이나 해양계통의 남방지역 또는 樂浪과 관련된 지역이나 목지국·고조선 등에서 온 이주민집단 및 경주 동해안지역이나 그 부근인 울산지역 및 출신지는 밝히지 않은 채 철을 잘 다루는 冶匠集團 정도 등으로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⁷⁾

『삼국사기』에 의하면 탈해는 즉위 당시 62세의 고령으로 그의 즉

4) 金烈圭, 「脫解 傳承考」, 『金載元博士回甲紀念論叢』, 을유문화사, 1969, 485-494쪽.

5) 蘇在英, 「三國遺事의 外來者 論攷-狐公·脫解說話의 경우」, 『金亨奎博士頌壽紀念論叢』, 1979.

6) 尹徹重, 「脫解神話의 研究」, 성균관대학교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1987.

7) 천관우, 『고조선사·삼한사연구』, 일조각, 1989, 281-284쪽; 김철준, 「신라 上古世系와 그 紀年」, 『한국고대사학회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0, 180쪽; 이형우, 『신라초기국가성장사연구』, 영남대학교출판부, 2000, 57쪽; 선석열, 『신라국가성립과정연구』, 해안, 2001, 54쪽, 288-289쪽; 문창로, 「신라와 낙랑의 관계」, 『한국고대사연구』 34, 한국고대사학회, 2004, 197-201쪽; 장창은, 「신라 박씨왕실의 분기와 석씨족의 집권과정」, 『신라사학보』 창간호, 신라사학회, 2004, 40-41쪽. 이외에도 많은 학자들이 탈해의 출신에 대해 부분적으로 언급한 바 있는데 이는 앞의 견해들과 거의 비슷하고 이미 제시된 결과물 속에 반영되어 있기때문에 중복을 피함과 더불어 지면도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여기에서는 생략하기로 하겠다.

위년이 서기 57년이었고 그가 진한 아진포구에 도착한 시기를 혁거세 왕 재위 39년인 기원전 19년이었다. 이것은 탈해가 출생보다 14년이 나 앞서 동해안에 나타났다는 말이 되며 그래서 사실성 문제는 별개로 기록 자체의 기년을 조정함으로써 탈해를 기원후 3세기대 인물로 상정하기도 한다.⁸⁾ 이는 상식적인 인간수명문제와 백제와의 충돌이 시작된 탈해시기가 250년대 이전으로 소급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기년 조정의 한 기준으로 설정했기 때문이다.⁹⁾

그러다보니 신라시조 박혁거세의 재위연대 역시 3세기대 초반으로 추정하는 결과를 낳았다. 그 결과 기원전 3세기에서 2세기경 청동기 문화를 배경으로 경주일대에 형성되었던 선주민 6촌이라든가 기원전 1세기 전반경 위만조선계 유민과 철기문화의 유입을 배경으로 이들과 결합한 세력의 존재가 신라사상에서 긴 공백으로 남게 되었다. 학계에서는 박혁거세로 상징되는 세력에 대해 대체로 위만조선계 철기문화를 소지했던 유이민집단으로 상정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⁰⁾

이같은 학계의 다양한 견해들은 무엇보다도 증거자료의 부족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일제시대 일인학자들에 의해 처음 제기된 이래 지금까지도 계속 논쟁이 되어온 『삼국사기』신라본기 초기기사의 신빙성문제¹¹⁾와 관련하여 탈해왕의 존재나 그 기사내용에 대한 불신¹²⁾ 및 과거 일본학계에서 日韓同祖論의 근거¹³⁾로 삼았던 역사적 경험에서 나오는 부정적 선입견 등도 간과할 수 없다.

8) 강중훈, 「『삼국사기』신라본기의 上古紀年 검토」, 『신라상고사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10쪽. 세부적인 면에서 약간 차이를 보이지만 선석열 역시 강중훈과 마찬가지로 탈해를 3세기대 인물로 보고 있다.(앞의 책, 해안, 2001, 225쪽)

9) 강중훈, 앞의 책, 2000, 27쪽.

10) 문창로, 앞의 논문, 2004, 181-187쪽.

11) 이에 대한 검토는 다음의 글이 참조된다. 이부오, 「일제강점기 신라사 사료비판의 전개」, 『2009년 신라사학회 추계학술대회 - 일제강점기 일본인 학자의 신라사 연구에 대한 검토』, 2009.

12) 장창은, 앞의 논문, 2004, 44-46쪽.

13) 三品彰英, 앞의 책, 1943, 265쪽.

물론 탈해에 대한 기사가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사건들을 기록하는 과정에서 설화적인 내용 및 후대의 부회 등으로 짜여져 있을 것임은 짐작되는 바이다. 그러나 그렇다고해도 현재까지 구체적인 증거나 사료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기존의 기년을 임의대로 조정하여 여기에 왕대나 사건을 끼워 맞추는 일은 매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현재 사료상에 남아있는 기록들은 신라초기의 왕위가 박·석·김·三姓 계승적인 것으로 변하면서 각각 구전되어 오던 각 성씨의 기년이나 왕대의 침식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더구나 탈해왕대에 일어난 것으로 알려진 백제와의 충돌 사건의 경우에 진한 제국시절의 일원으로서 신라의 전신인 사로국이 마찬가지로 마한 제국시절의 일원으로서 백제로 통일되기 이전의 小國과 국지적인 전투를 벌였을 것인데 이러한 사건이 백제라는 이름으로 탈해왕대 기사에 삽입되었을 가능성도 있다.¹⁴⁾ 또한 『삼국유사』가락국기에 는 탈해가 수로왕의 가락국에 도착한 시기를 신라 남해왕대로 기술하고 있어 약간의 시차가 존재하기도 한다. 이처럼 문헌적으로나 고고학상으로 증거자료가 불충분하고 불명확하며 학계의 의견 역시 여전히 분분한 상태에 있는 신라초기왕대의 기년조정문제에 대해 여기에서 또다시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

대신 탈해의 활동시기가 현재 전하는 사료에 의하면 기원 전후시기로 상정되어 있고 한반도 철기문화의 전파경로와 한반도 남부의 상황 및 탈해를 비롯한 집단세력과 제철기술의 밀접한 관련성, 그리고 빈번한 주민이동과 건국과정이라는 동북아시아의 불안정한 정세 등을

14) 이형우는 탈해왕대 기사를 혁거세, 남해, 유리왕대 대외관계 기사와 같이 사로국의 활동내용이 아니라 진한지역의 다른 정치집단과의 관련기사로서 후일 이들 집단이 사로국에 편입되었으므로 여과없이 초기신라사에 다루어진 결과로 파악하였다.(앞의 책, 2000, 66쪽)

감안해 볼 때 탈해의 출생과 사로국으로의 이주, 등극과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삼한시대, 특히 사로국시대 초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그런데 앞에서 잠시 살펴본 것처럼 지금까지 한국고대사학계에서는 탈해의 출신지에 대해 많은 의견을 제시하여 왔다. 그러나 한국학계에서는 한반도의 정세변화에 가장 민감한 일본열도와와의 관련성에 대해 거의 주목하고 있지 않다.¹⁵⁾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왜지역과 관련시켜 탈해의 출생지로 지목된 용성국 또는 다파나국과 그가 한반도 남부지역으로 이주한 배경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탈해의 출생과 龍城國(多婆那國)

탈해는 신라 초기인 진한의 사로국 시절 제4대왕으로서 등극한 인물이다. 그의 출생 및 이주과정과 관련한 일화는 『삼국유사』탈해왕조와 『駕洛國記』에 각각 설화적으로 실려 있다. 이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가. “脫解齒叱訖(또는 吐解尼師訖이라고 한다.)은 남해왕 시절(옛 본에서 壬寅年에 왔다고 한 것은 잘못이다. 가깝게는 弩禮王 즉위 후의 일이므로 왕위를 다투는 일이 없었을 것이고 앞서의 일이라면 赫居世王 재위기간이므로 壬寅年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가락국 바다 가운데에 배를 정박시켜 놓고 있었는데 그 나라의 首露王이 신하 및 백성들과 함께 북을 울리면서 맞아들여 머물게 하려했는데 배가 곧 손살같이 달아나 계림의 동쪽 下西知村 阿珍浦(지금 上西知와 下西知의 마을이름이 있다.)에 이르렀다.

15) 일본학계에서는 언어·신화·민속학적 측면 등 다양한 관점에서 탈해설화를 고찰한 바 있는데 한국학계와 달리 탈해의 출신지역을 대체로 일본열도에 존재하던 한 나라로 간주하고 여러 가지 학설을 제시한 바 있다.(三品彰英, 『日鮮神話傳説の研究』, 柳原書店, 1943; 寶賀壽男, 『神功皇后と天日矛の傳承』, 法令出版社, 2008)

이때 포구 주변에는 한 노파가 있었고 이름을 阿珍義先이라 하는데 곧 혁거세왕의 고기잡이 어머니이다. 멀리서 바라보며 이르기를, '이 바다 가운데에는 원래 돌과 바위가 없었는데 어찌하여 까치가 모여 우는가'라고 하고는 배를 끌어당겨 살펴보니 배 위에는 까치가 모여 있고 배 안에는 궤 하나가 있었는데 길이가 20척, 넓이가 13척이었다. 그 배를 예인하여 樹林 아래에 두었는데 흥한 것인지 길한 것인지 알지 못해 하늘을 향해 기도를 올리고 있었다. 조금 있다가 바로 열어보니 단정한 남자가 있었고 7가지의 보물과 노비 등도 그 안에 함께 가득 실려 있었다. 7일 동안 대접하였더니 이에 말하기를, '나는 본래 龍城國人(또는 正明國 혹은 琯夏國이라고도 한다. 琯夏는 혹 花夏國이라고도 하는데 용성은 왜의 동북쪽 1천리에 있다.)으로 우리나라에는 일찍이 28용왕이 있었는데 사람에게서 태어났고 5·6세에 왕위에 올라 만민을 교화하여 性命을 닦아 바르게 하였다. 8품의 姓骨이 있으나 선택하는 일이 없이 모두 大位에 올랐습니다. 이때 나의 아버지 舍達婆王이 積女國 왕녀와 결혼하여 비를 삼았으나 오랫동안 자식이 없어 간절히 기도하여 7년 후에 큰 알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왕이 군신들을 불러 모아 물었는데, 사람이 알로 태어난 일은 아직까지 없어서 아마도 좋은 일은 아닐 것이라고 하여 곧 궤짝을 만들어 나를 넣어두고 칠보와 노비를 함께 실어 바다 가운데로 내보냈습니다. 바다에 띄우면서 인연 있는 땅에 이르러 나라를 세우고 집을 이루라고 기원하였는데, 문득 붉은 용이 있어 배를 호위하며 이곳에 이르렀습니다.'라고 하였다. 말을 마치자 젊은이는 지팡이를 끌고 두 종을 이끌며 岫山 위에 올라가 石塚를 쌓고 7일간 머물며 성 안에 살만한 곳이 있는지를 내려다보았다. 초승달과 같은 한 산봉오리가 보였는데 지세가 오래 살만한 곳이었다. 이에 곧 내려가 살펴보니 瓠公의 집이었다. 곧 계책을 세워 몰래 그 집 곁에 숯돌과 숯을 묻어 놓고 이튿날 아침 그 집 문 앞에 이르러 말하기를, '이곳은 내 조상대의 집이다.'라고 하니 호공이 아니라고 하여 다름이 해결되지 않자 곧 관에 보고하였다. 관에서 이르기를, '이곳

너희 집이라는 것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겠느냐.’고 하니 젊은이가 말하기를, ‘나는 본래 대장장이로서 잠시 이웃마을에 나갔다가 다른 사람이 차지하여 살고 있으니 땅을 파서 조사해보기를 청합니다.’고 하였다. 그 말대로 하니 과연 솥돌과 솥이 나왔으므로 이에 그 집을 빼앗아 살게 되었다. (생략)”(『三國遺事』卷1 紀異1 脫解王條)

위 기사내용에 의하면 탈해는 왜의 동북쪽 1천리에 위치한 용성국에서 태어나 바다를 건너 가락국 김해지역을 경유하여 사로국 경주지역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는 탈해가 사로국에서 태어난 토착민이 아니라 다른 지역 출신의 이주민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런데 탈해는 사로국에 도착하기 전 먼저 가락국 해변에 정박하고 있었는데 이때 수로왕이 신하 및 백성들과 함께 북을 울리면서 탈해 자신을 맞아들여 머물게 하려하자 배가 곧 쏜살같이 계림으로 달아났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삼국유사』가락국기에는 사로국으로 도망간 탈해의 도주와 관련한 흥미로운 기사가 실려 있는데, 이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나. “(생략) 갑자기 玩夏國 舍達王의 부인이 임신을 하여 달이 차서 알을 낳았는데 알이 사람으로 변하니 이름을 탈해라 하였다. 바다를 따라 내려왔는데 키가 3척이며 머리 둘레가 1척이었다. 기쁜 마음으로 궤에 이르러 왕에게 말하기를, ‘나는 왕위를 다투고자 왔을 뿐이다’라고 하였다.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하늘이 나에게 명하여 왕위에 오르게 했고 장차 나라 안을 안정시키고 아래로 백성을 평안히 하려고 한다. 감히 하늘의 명을 어기고 왕위를 그대에게 줄 수 없다. 또한 감히 내 나라 내 백성을 그대에게 맡길 수 없소’라고 하였다. 탈해가 말하기를, ‘그렇다면 그대는 술수로서 다룰 수 있는가’라고 하자, 왕이 ‘좋다’라고 하였다. 잠깐 사이에 탈해가 매로 변하자 왕은 독수리로 변하였고 또 탈해가 참새로 변하자

왕은 새매가 되었다. 이때 매우 짧은 시간도 지나지 않아 탈해가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아왔고 왕 역시 회복하였다. 탈해가 곧 엎드려 말하기를, ‘제가 술수를 다투는 자리에서 매가 독수리에게서, 참새가 새매에게서 죽음을 면한 것은 아마도 성인이 살생을 싫어하는 인자함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왕과 더불어 왕위를 다투는 일은 진실로 어렵겠습니다.’라고 하였다. 곧 작별을 고하고 나가 인근 변두리 나루에 이르러 중국으로부터 오는 배가 닿은 물길을 따라 가려고 하였다. 왕은 몰래 머물면서 반란을 꾀할까 염려되어 급히 舟師를 실은 배 5백척을 보내 추격케하니 탈해가 도망하여 계림의 경계로 들어가자 舟師가 모두 돌아왔다. 이 기사에 실린 것이 신라와는 많이 다르다.(생략)”

위 사료 나에서는 탈해가 용성국의 또다른 이름인 완하국 含達王의 왕자로, 탈해의 출생이 卵生이란 점과 그가 자신의 고향을 떠나 첫 경유지인 가락국으로 들어가 앞서 정착한 수로왕과 왕위쟁탈전을 벌이다가 수로왕에게 패하여 쫓겨나서 사로국으로 도망간 사정 등을 설화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 기사에 대해서는 김해 가락국의 건국과정에서 일어난 수로와 탈해의 왕위다툼으로 가락국 건국 이후 대외교역권을 둘러싼 신라와 가야의 주도권 다툼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도 한다.¹⁶⁾

그런데 『삼국사기』탈해니사금조에도 탈해의 출생 및 사로국으로의 이주과정과 관련하여 유사한 내용이 실려 있다. 다만 『삼국사기』에서는 용성국을 다과나국으로, 積女國을 女國으로 기술하고 있다.¹⁷⁾ 그

16) 백승충, 「변한의 성립과 발전」, 『삼한의 사회와 문화』, 신서원, 1995, 163쪽.

17) 『三國史記』新羅本紀 脫解尼師今條, “脫解尼師今立 一云吐解 時年六十二 姓昔 妃阿孝夫人 脫解本多婆那國所生也 其國在倭國東北一千里 初其國王 娶女國王女爲妻有娠七年乃生大卵 王曰 ‘人而生卵不祥也 宜棄之’ 其女不忍 以帛裹卵 并寶物置櫃中 浮於海 任其所往 初至金官國海邊 金官人怪之不取 又至辰韓阿珍浦口 是始祖赫居世在位三十九年也 時海邊老母 以繩引繫海岸 開櫃見之 有一小兒在焉 其母取養之(……)”

리고 이 책에서는 『삼국유사』와 달리 탈해와 관련하여 불교적 색채를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물론 탈해의 출생에 대해서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모두 알에서 태어났다고 하는 신이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이는 『삼국사기』가 그 이전시기부터 신라에서 전승되어 오던 탈해의 난생설화를 그대로 기록한 것이고, 『삼국유사』의 경우에는 탈해의 전승설화 위에 불교적 윤색을 더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가령, 탈해의 출생지로 든 용성국·완하국 등의 國名이라든가, 그의 아버지로 나오는 함달왕이라든가, 붉은 용이 배를 호위한다거나, 살생을 싫어한다는 이야기 등이 바로 그것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삼국사기』에서는 다파나국으로, 『삼국유사』에서는 용성국으로 기술한 탈해의 출생국이 과연 어느 지역 또는 어느 나라를 가리키고 있으며, 탈해가 출생한 나라의 위치를 왜의 동북쪽 1천리에 있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의 왜가 일본열도 전체를 가리키는 것인지 아니면 일본열도의 여러 소국 가운데 어느 한 나라를 가리키는 것인지 명확히 알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한편에서는 탈해의 출생국이 우리나라는 물론 중국이나 일본 등의 역사에서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탈해의 출생국으로 언급된 다파나국이 「魏志」世宗紀 永平 元年 3月條에 于闐과 함께 보이며 탈해의 생부인 함달파가 불교음악의 신으로 서역에서는 呪師의 樂人을 가르치는 龍人信仰과 결부되어 있다는 점, 탈해의 장례가 유골을 분쇄하여 塑像을 만들어 안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이것이 서역에서 시작되어 중국을 거쳐 고구려 및 백제로 들어와 성행한 점 등을 들어 西域의 小國으로 추정하며 아울러 ‘倭東北一千里’의 기사는 용성국·다파나국 등의 국명이 일본역사에서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에 謬記로 판단하고 중국에 있어서 청동기나 철기 문화가 황하유역보다 양자강유역지방이 더 발달한 선진지역임이 고고학적 조사로 밝혀지고 있는데 한반도의 고대문화, 특히 인구가 밀집

되어 있는 서남평야지대에는 양자강유역의 금속문화가 크게 영향을 미쳤으며 철기문화의 전래로 볼 때 난생철화와 야장철화가 모두 들어 올 수 있는 경유지로서 중국서남해안지방을 거론하기도 한다.¹⁸⁾ 다른 한편에서는 왜를 일본열도 전체로 이해하고 왜의 동북쪽을 현재의 러시아 캄차카반도로 보기도 하는데 1천리라는 거리는 고대인들이 막연히 먼 곳을 가리킬 때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것일뿐 문자 그대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고 일본열도 동북쪽으로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은 캄차카반도 뿐이라는 견해도 있다.¹⁹⁾

그런데 탈해의 출신지가 왜의 동북쪽 1천리에 있었다고 하는 기술은 『삼국유사』 편찬자가 주를 달아 설명한 부분으로서 편찬당시의 지리적 관념을 반영한 것일 수 있다.²⁰⁾ 또한 그 이전부터 전승되어 온 탈해의 출생지에 대한 지리적 관념의 반영일 수도 있다. 그러나 탈해 일행이 거주지역에서 배를 타고 가장 먼저 김해의 가락국을 경유하고 난 후 진한 아진포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이들이 해류를 따라 북쪽으로 향하여 한반도 동남부지역에 이르렀던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아진포의 위치에 대해서는 그동안 迎日·甘浦·下西里 등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면밀한 분석과 현장조사 등을 통해 아진포를 현재의 경주 양남면의 羅兒川 河口로 비정하고 있으며 이곳 주변에는 관성천 발원지 소재의 萬里城이라고 하는 성이 남아 있는데 신라 성덕왕대에 일본적을 막기 위해 쌓은 성터로 전해진다.²¹⁾ 따라서 나아천 하구 주변은 오래전부터 왜인 또는 일본인들이 신라로 들어가기 위해 경유하는 통로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탈해 일행은 해상교통로상 그 남쪽에 있는 일본의 대마도를 비롯한 큐슈나 혼슈 등지에서 출발했을 가능성이 있다.²²⁾ 이

18) 姜仁求, 『古墳研究』, 학연문화사, 2000, 443-445쪽.

19) <오마이뉴스-신라왕 석탈해는 캄차카반도 출신?> 2011년 1월 21일자.

20) 尹徹重, 앞의 논문, 1987, 116쪽.

21) 윤철중, 「탈해왕의 도래지 '아진포'의 위치변증」, 『백산학보』 45, 백산학회, 1995.

러한 해로는 낙랑이나 대방군에서 왜국으로 향할 때의 경로로도 사용되었는데 사료상에 의한다면, 당시의 거리관념에서는 한반도 중·북부로부터 한반도 남부까지의 거리가 7천여리로, 다시 한반도 남부에서 바다를 건너 대마도까지의 거리가 1천여리로 계산되고 있다.²³⁾ 따라서 이러한 당시의 거리관념으로 볼 때 '1천여리'라는 지역은 한반도 남부에서 그리 먼 곳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만일 탈해의 출생지가 한반도와 가까운 동해 가운데에 있었다면 굳이 왜국을 기점으로 그 나라의 위치를 설정하진 않았을 것이다. 이는 탈해의 출생지가 한반도보다는 일본열도에 좀더 가깝거나 적어도 일본열도에 소재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당시 신라와 접촉한 일본열도의 소국 중에 잘 알려진 세력을 왜나 왜국으로 인식하고 이를 기준으로 삼았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신라의 건국 초기인 기원전 1세기대에는 한반도와 일본열도에서 소국들의 건국과 소멸과정이 활발하였고 이에 따라 인적이동도 규모나 시기에 상관없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²⁴⁾

『삼국유사』에서는 탈해왕의 어머니를 '적녀국' 출신으로 기록하고 있다. 반면 『삼국사기』에서는 '여국'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사서인 『後漢書』와 『三國志』의 東沃沮條가 주목된다. 이에 의하면, '바다 가운데에 여국이 있는데 남자는 없고 모두 여자며 그 나라에 신령스러운 우물이 있어 그 안을 엿보면 곧 자식을 낳는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한다.²⁵⁾ 이는 사서편찬자들이 실지 답사에 의해 서술

22) 윤명철, 『한국해양사』, 학연문화사, 2003, 168쪽 ; 정진술, 『한국의 고대 해상교통로』,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9, 371-408쪽.

23) 『三國志』魏書 烏丸鮮卑東夷傳 倭人條, “在帶方東南大海中 依山島爲國邑 舊百餘國 漢時有朝見者 今使譯所通三十國 從郡至倭循海岸水行 歷韓國乍南乍東 到其北岸狗邪韓國七千餘里 始度一海千餘里至對馬國 (……) 又南渡一海千餘里 名曰瀾海至一大國 (……) 又渡一海千餘里至末盧國 (……) 東南陸行五百里到伊都國 (……)”

24) 김선숙, 「上古時期 韓半島와 日本列島間 주민이동 및 교류양상에 관한 검토」, 『한국학연구』 34,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12-13쪽.

한 것이 아니라 그 지역 사람들의 이야기를 그대로 전제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가능성을 제시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당시 동아시아에서 전설처럼 전해지거나 널리 퍼졌던 이야기로서 미지의 신비스러운 나라인 여국을 탈해의 母國으로 설정하여 신성시한 것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일본 북부큐슈에 존재하던 奴國(倭奴國)을 옮겨 적는 과정에서 잘못 표기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²⁶⁾

왜의 노국은 다과나국의 위치를 알려주는 기준인데 현재의 일본 후쿠오카(福岡)에 위치한 나라로서 후한 光武帝 시기인 기원후 57년(建武 中元 2)에 조공한 바 있다.²⁷⁾ 그런데 이 노국이 중국대륙과 일본 열도 중간지점에 위치한 한반도내의 여러 나라와도 접촉하고 있었다. 『舊唐書』에는 왜국과 함께 일본국을 별도의 항목으로 나누어 왜국을 왜노국, 일본국을 왜국의 별종이라 하고 일본은 옛 소국이었으며 왜국땅을 병합했다고 한다.²⁸⁾

이는 왜국을 왜노국으로 파악하고 있었던 것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탈해의 출생지는 비록 구체적인 지역을 밝히긴 힘들지만 노국이 위치한 지점에서 동북 1천리로 현재의 일본 혼슈지역에 위치한 나라의 하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²⁹⁾ 그런데 탈해의 출생국은 일본열도에 존재하던 수백개의 소국 중의 하나로서 국가로서의 존재시기가 짧고 그다지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의 역사서에서 찾아볼

25) 『後漢書』東夷列傳 東沃沮條,“(……) 又說海中有女國無南人 或傳其國有神井闕之輒生子云”; 『三國志』魏書 烏丸鮮卑東夷傳 東沃沮條,“(……) 又言有一國 亦在海中 純女無男 (……)”

26) 김선숙, 앞의 논문, 2010, 13-14쪽.

27) 『後漢書』帝紀 光武帝 春正月條, “東夷倭奴國遣使奉獻(倭在帶方東南大海中依山島爲國)”

28) 『舊唐書』東夷倭國傳, “倭國者倭奴國也 去京師一萬四千里 (……) 日本國者倭國之別種也 (……) 或云日本舊小國 併倭國之地 其人入朝者多自矜大 (……)”

29) 김선숙, 앞의 논문, 2010, 13-14쪽. 『三國遺事』의 용성국이나 『三國史記』의 다과나국에 대해 九州 肥後의 玉名郡이나 但馬의 多知馬國이라든가 심지어 北海島 등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다.(金在鵬, 「脫解放」, 『朝鮮學報』 56, 1970, 17쪽.)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삼국유사』등의 후대의 사서에서 탈해의 출생국을 여러 가지로 기술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³⁰⁾

Ⅲ. 탈해의 이주와 즉위 배경

기원 전후 시기 만주·연해주 및 한반도에는 여러 국가들이 정립된 상태로 정치적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었다. 즉, 한반도 북부를 포함한 만주 및 연해주지역에는 夫餘³¹⁾·挹婁³²⁾와 高句麗(高句驪·句驪)³³⁾·沃沮³⁴⁾·濊³⁵⁾ 등은 물론 기원전 108년경 漢武帝가 朝鮮을 멸하고 설치한 樂浪·眞番·玄菟·臨屯의 4군에서 기원전 82년경(昭帝 始元 5) 2군으로 통합된 낙랑군³⁶⁾과 현도군³⁷⁾이 각각 자리하였고 그 남

30) 탈해의 출생국이 여러 이름으로 나타난 이유에 대해 탈해부족이 본래 거주했던 지역뿐 아니라 유이해 오는 과정에서 정복한 섬이나 해변을 거점으로 거주하던 지역이 포함되었기 때문이고 왜국 동북방에 위치해 있었다는 것은 용성국이 동해나 남해의 섬에 세워진 국가였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김두진, 「新羅 脫解說話의 형성 기반」, 『한국고대의 건국신화와 제의』, 일조각, 1999)

31) 『後漢書』東夷列傳, “夫餘國在玄菟北千里 南與高句驪 東與挹婁 西與鮮卑接 北有弱水 地方二千里 本濊地也”

32) 『後漢書』東夷列傳, “挹婁古肅慎之國也 在夫餘東北千餘里 東濱大海 南與北沃沮接”

33) 『後漢書』東夷列傳, “高句驪在遼東之東千里 南與朝鮮濊貊 東與沃沮 北與夫餘接 地方二千里”

34) 『後漢書』東夷列傳, “東沃沮在高句驪蓋馬大山之東 東濱大海 北與挹婁夫餘 南與濊貊接 其地東西夾 南北長 可折方千里”

35) 『後漢書』東夷列傳, “濊北與高句驪沃沮 南與辰韓接 東窮大海 西至樂浪 濊及沃沮句驪本皆朝鮮之地也”

36) 『漢書』地理志 樂浪郡條, “(……)戶六萬二千八百一十二 口四十萬六千七百四十八 縣二十五 朝鮮[言+冉]邯涓水含資黏蟬遂成增地帶方馳望海冥列口長岑岵有昭明鑊方提奚渾彌吞列東[日+施]而不蠶台華麗邪頭昧前莫天租”

37) 『漢書』地理志 玄菟郡條, “戶四萬五千六百 口二十二萬一千八百四十五 縣三 高句驪(遼山遼水所出西南至遼隧入大遼水 又有南蘇水西北經塞外應劭曰故句驪胡) 上殷台(莽曰下殷…) 西蓋馬(馬訾水西北入鹽難水西南至西安平入海過郡二 行一千一百里莽曰玄菟亭)”

쪽에는 옛 辰國이 馬韓·辰韓(秦韓)·弁韓(下韓·辯韓·辨辰·下辰·弁辰)의 三韓으로 형성되고 있었다.³⁸⁾

『후한서』에 의하면 韓은 옛 진국으로서 마한·진한·변한 등의 삼한이라 하였다.³⁹⁾ 그런데 『삼국지』에는 한반도남부의 정치집단군 중 진한만이 진국을 계승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⁴⁰⁾ 또한 일부에서는 진한이 본래 변한과 함께 요동방면에서 ‘北辰·弁韓(北眞番)’을 이루고 있다가 秦의 중국통일 이후 남하하여 위만조선 말기에 황해도 방면으로 이동, 南辰·弁韓(南眞番)과 그 남방인 한강하류에 ‘진국’을 이루고 있었으며, 부여·고구려계인 온조·비류세력이 한강하류에 도달하면서 진국은 다시 남하하여 결국 경주에 정착, 사로국시대를 열었다는 견해도 있다.⁴¹⁾ 그러나 학계의 대다수는 한 곧 삼한이 진국을 계승한 것으로 보고 있다.⁴²⁾

진국을 계승한 삼한은 각각 수십개의 소국으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가운데에서도 月支國(月支國)을 다스리는 진왕 소속의 마한이 종주국 내지 맹주국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⁴³⁾ 이는 마한 제국의 일원인 百濟의 전신 伯濟國처럼 기원전부터 유이민이 건국한 나라가 존재했다고 해도 일부 마한국이 백제의 영역확장에 따라 멸망당하기 전까지⁴⁴⁾

38) 文昌魯, 「『三國志』韓傳의 ‘辰王’에 대한 理解方向」, 『韓國學論叢』26,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03, 8-13쪽; 김선숙, 「古代史料上에 나타난 韓半島와 日本列島 居住民의 실제 및 상호인식」, 『대동문화연구』67, 대동문화연구원, 2009, 172-180쪽.

39) 『後漢書』東夷列傳 韓條, “有三種 一曰馬韓 二曰辰韓 三曰辨辰(……) 凡七十八國伯濟是其一國焉(……) 皆古之辰國也 馬韓最大共立 其種爲辰王 都目支國 盖王三韓之地 其諸國王先”

40) 『三國志』魏書 東夷傳 韓條, “(……) 一曰馬韓 二曰辰韓 三曰弁韓 辰韓者 古之辰國也(……)”

41) 千寬宇, 『加耶史研究』, 일조각, 1991, 229쪽.

42) 李賢惠, 『三韓社會形成過程研究』, 일조각, 1984, 8-11쪽.

43) 『後漢書』東夷列傳 韓條, “凡七十八國伯濟是其一國焉(……) 皆古之辰國也 馬韓最大共立 其種爲辰王 都目支國 盖王三韓之地 其諸國王先”; 『三國志』魏書 烏丸鮮卑東夷傳 韓條, “凡五十餘國 大國萬餘家 小國數千家 總十餘萬戶 辰王治月支國”

44) 현재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三國史記』百濟本紀 始祖 溫祚王 26년과 27년조에서

주로 기존 토착민들로 구성된 정치집단에 의해 운영되고 낙랑군과 교류관계를 지니며 성장한 사회⁴⁵⁾인데 반해 진·변한은 기존 6개의 소국이 있었으나 유이민들의 정착을 계기로 12개의 소국으로 확대되어 마한의 정치적 간섭을 강하게 받은 역사적 경험이 있다.⁴⁶⁾

는 기원후 8년과 9년에 백제가 마한의 쇠퇴와 정치적 혼란을 기회로 마한의 국읍을 공격하여 멸망시켰다고 했는데(“二十六年 秋七月 王曰 馬韓漸弱 上下離心 其勢不能久 儻爲他所并 則唇亡齒寒 悔不可及 不如先人而取之 以免後艱 冬十月 王出師 陽言田獵 潛襲馬韓 遂并其國邑 唯圓山錦峴二城 固守不下 二十七年 夏四月 二城降 移其民於漢山之北 馬韓遂滅”) 여기에서의 마한이 과연 어느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학계에서는 대체로 목(월)지국을 지목하고 있으며 온조왕대의 일이 아니라 후대인 3세기 古爾王代의 사건으로 보고 있다.(김수태, 『3세기 중·후반 백제의 발전과 馬韓』, 『마한사 연구』, 충남대학교출판부, 1998, 21쪽.) 그러나 온조왕이 거짓으로 전립한다고 하면서 마한을 습격한 점, 圓山과 錦峴의 두 성이 구체적으로 어디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지만 이들 성이 항복한 뒤 온조왕이 그 백성을 漢山의 북쪽으로 옮긴 점 등에서 이 마한은 伯濟와 가까운 주변의 소국 가운데 하나였거나 혹은 목지국이 멸망하였다고 하더라도 마한의 종주국은 다른 나라로 옮겨갔을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後漢書』東夷列傳 韓條에 의하면 기원후 44년(後漢 建武 20)에 韓의 廉斯人 蘇馬謨 등이 낙랑과 교류하였고, 『魏略』에 의하면 新 王莽 地皇(20-22) 때 廉斯鎡이 辰韓의 右渠帥가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이 廉斯 역시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을 가리키고 있는지 알 수 없다. 다만 진한에는 각 渠帥가 있고 진한은 항상 마한인이 주인이 되었다고 한 사실(『晉書』四夷傳 辰韓條)로 미루어볼 때 소마시나 염사착은 마한왕이 임명한 인물들로 使臣이나 진한의 우거수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기원후 1세기대까지도 마한 종주국의 영향력은 여전하기 때문에 마한이 멸망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온조왕대의 사실로 보아도 모방하다.

45) 『後漢書』東夷列傳 韓條, (“(……) 馬韓在西有五十四國 (……) 凡七十八國 伯濟是其一國焉 (……) 朝鮮王準爲衛滿所破 乃將其餘衆數千人 走入海攻馬韓破之 自立爲韓王 準後滅絕 馬韓人復自立爲辰王 建武二十年韓人廉斯(廉斯邑名)人蘇馬謨等詣樂浪貢獻 光武封蘇馬謨爲韓廉斯邑君使屬樂浪郡 四時朝謁 (……)”; 『三國史記』百濟本紀 始祖 溫祚王 24年(A.D. 5)條 “秋七月 王作熊川柵 馬韓王遣使責讓曰 王初渡河 無所容足 吾割東北一百里之地安之 其待王不爲不厚 宜思有以報之 今以國完民聚 謂莫與我敵 大設城池 侵犯我封疆 其如義何 王慙遂壞其柵”

46) 『三國史記』新羅本紀 始祖 赫居世居西干 38年條, “春二月 遣瓠公聘於馬韓 馬韓王讓瓠公曰 辰卞韓爲我屬國 比年不修職貢 事大之禮 其若是乎 (……)”; 同書 百濟本紀 始祖 溫祚王 10年(B.C. 11)條, “秋九月 王出獵 獲神鹿 以送馬韓”; 同書 百濟本紀 始祖 溫祚王 13年(B.C. 6)條, “八月 遣使馬韓 告遷都 遂劃定疆場 (……)”; 同書 百

신라는 바로 이 진변한의 24개 소국 가운데 하나인 사로국에서 출발하였다. 그런데 진한 지역에는 이미 사로 6촌으로 상징되는 고조선계 토착세력과 함께 秦始皇帝 시절 힘든 생활을 피해 한반도 남부지역으로 남하하여 정착한 秦의 망명자들이 함께 거주하고 있었다.⁴⁷⁾ 사료상에 의하는 한 사로국은 기원전 57년경 다수의 경주지역 선주세력집단, 즉 六村들이 赫居世를 중심으로 새로운 정치집단을 형성한다. 고고학 유물상으로도 기원전 1세기 무렵 경주지역에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즉 경상도지방에서는 기원전 1세기경에 철원료가 생산되고 경주 등지를 중심으로 일정한 수준의 철제무기, 공구류들이 독자적으로 제작 보급되고 있었으며 경주시 조양동 토광묘에서 발굴된 鐵戈와 鋤部 단면이 장방형이며 활 형태의 날을 가지는 주조의 鐵斧類가 청동제戈와 斧를 철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대두하는 유물이다.⁴⁸⁾ 경주 입실리 유물군에서는 세문경, 청동방울, 청동간두식과 같은 청동기문화단계의 표식적인 유물들이 蓋弓帽, 鐵斧, 鐵劍, 馬鐸과 같은 위씨조선계 토광묘의 전형적인 유물들과 함께 출토되고 있어 六村長 계통의 선주 지배집단들이 위씨조선계 유민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⁴⁹⁾

濟本紀 始祖 溫祚王 18年(B.C. 1)條, “冬十月 靺鞨掩至 王帥兵 逆戰於七重河 虜獲 酋長素牟送馬韓 其餘賊盡坑之”; 『後漢書』東夷列傳 韓條, “辰韓耆老自言 秦之亡人 避苦役適韓國 馬韓割東界地與之”; 『三國志』魏書 烏丸鮮卑東夷傳 辰韓條, “(……) 始有六國 稍分爲十二國 (……)”; 同書 弁辰條, “(……) 其十二國屬辰王 辰王常用馬韓人作之 世世相繼 辰王不得自立爲王 (……) 魏略曰 明其爲流移之人 故爲馬韓所制 (……)”

47) 『三國史記』新羅本紀 始祖 赫居世居西干條, “姓朴氏諱赫居世 前漢孝宣帝五鳳元年甲子四月丙辰 一曰正月十五日 卽位 號赫居世 時年三十 國號徐那伐 先是朝鮮遺民 分居山谷之間爲六村 (……) 三十八年 (……) 前此中國之人 苦秦亂東來者衆 多處馬韓東 與辰韓雜居 至是寢盛 (……)”; 『後漢書』東夷列傳 韓條, “辰韓耆老自言 秦之亡人 避苦役適韓國 馬韓割東界地與之 (……)”

48) 이현혜, 앞의 책, 1984, 66-67쪽.

49) 이현혜, 앞의 책, 1984, 74쪽.

이러한 토대 위에 호공과 같은 일부 왜인들 역시 일본열도내의 불안정한 정세변화로 인해 한반도남부로 도래하여 건국과정에 일정한 기여를 했다.⁵⁰⁾ 일본열도내의 정세변화는 구체적으로 확인할 길이 없지만 중국의 고대문헌사료에 의하면 일본열도에서는 기원 전후로 하여 백여개의 소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고 한다.

일본열도에서는 기원전 1세기대로부터 기원후 1세기에 걸쳐 각지의 수장들이 정치동맹을 형성하여 그들 사이에 대수장을 중심으로 한 정치질서가 생기게 되었는데 주도적 집단의 대규모취락을 상위로 해서 복수의 소취락이 결합된 지역집단인 부족사회 '나라(國)'가 각지에 형성되고 이 결합의 중심에 위치하는 대취락은 교역, 제사 등의 중심지 역할을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북부 큐슈에서는 야요이 중기에 그러한 지역집단 수장묘에서 前漢鏡이 출토된 바 있어 지역집단 가운데 유력한 자는 낙랑을 통해 중국과 교섭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기원전 1세기경의 '백여국'은 바로 그러한 유력집단을 일컫는다.⁵¹⁾ 그런데 이들 나라 가운데 한군현의 설치 이후 비로소 30여개의 소국이漢과 교류를 시작하면서 그의 정치적 영향력 아래에 들어가게 되었고,⁵²⁾ 특히 倭奴國과 大倭王이 거주하던 야마대(일)국 등이 일본열도내에서 각기 주도권을 다투고 있었으며 대외관계에서도 가장 적극적이었다.⁵³⁾

50) 『三國史記』新羅本紀 始祖 赫居世居西干 38年條, “春二月 遣瓠公聘於馬韓 (……) 瓠公者未詳其族姓 本倭人 初以瓠繫腰 渡海而來 故稱瓠公”

51) 정한덕, 『일본의 고고학』, 학연문화사, 2002, 185쪽.

52) 『漢書』地理志 “(……) 夫樂浪海中有倭人分爲百餘國 以歲時來獻見云 (……)”; 『後漢書』東夷列傳 倭條, “在韓東南大海中 依山島爲居 凡百餘國 自武帝滅朝鮮 通於漢者三十許國 國皆稱王 世世傳統 (……)”; 『三國志』魏書 烏丸鮮卑東夷傳 倭人條, “在帶方東南大海中 依山島爲國邑 舊百餘國 漢時有朝見者 今使譯所通三十國 (……)”

53) 『後漢書』帝紀 光武帝 建武中元 2年(57)條, “春正月 東夷倭奴國王遣使奉獻”; 『後漢書』東夷列傳 倭條, “其大倭王居邪馬臺(壹)國 (……) 建武中元二年 倭奴國奉貢朝賀 使人自稱大夫 倭國之極南界也 光武賜以印綬 (……)”

기원 전후시기 한반도와 일본열도간 교류관계 역시 대개 한과 왜의 관계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철을 매개로 하여 변진은 마한이나 濊, 중국 군현은 물론 왜와도 교역을 하였다.⁵⁴⁾ 왜의 경우 기원전 1세기 경에 무기·농공구의 철기화가 일반화되는 과정에서 철의 수요가 비약적으로 증대하면서 한반도 남부가 야요이시대 이래 철소재의 좋은 공급지였다.⁵⁵⁾

한과 왜는 비록 바다를 사이에 두고 존재했지만 이를 잘 활용하여 선사시대부터 다소의 주민과 문화의 이동이 있었다. 이는 『삼국사기』나 『일본서기』와 같은 문헌사료에서 확인할 수 있다.⁵⁶⁾ 漢武帝 시절(B.C. 141 ~ B.C. 85) 일본열도에는 수많은 소국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에는 위만조선의 멸망을 계기로 한반도에서 일본열도로 건너간 이주민들에 의해 건설된 국가가 있었다.

그같은 사례는 신라왕자 아메노히보코(天日槍)의 渡日神話나 延鳥郎細鳥女 설화 등에서 엿볼 수 있다.⁵⁷⁾ 이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다. ㄱ-“(생략) 옛날에 한사람이 있었는데 배를 타고 但馬國에 도착하였다. 사람들이 ‘당신은 어느 나라사람이요’라고 물으니, 대답하여 이르기를, ‘신라왕자로서 이름은 天日槍이요’라고 말하였다. 곧 但馬에 머무르고 그 나라 前津耳(혹은 前津見 또는 太耳라고도 한다.)의 딸을 아내로 맞이하여 但馬諸助를 낳았다. 이는 淸彦의 아버지이다.”(『日本書紀』垂仁天皇 3年)

ㄴ-“신라 제8대 아달라왕이 즉위한 지 4년(157) 동해가에 연오랑과

54) 『三國志』魏書 烏丸鮮卑東夷傳 弁辰條,“(……) 國出鐵 韓濊倭皆從取之 諸市買皆用鐵 如中國用錢 又以供給二郡 (……)”

55) 정완덕, 앞의 책, 학연문화사, 2002, 198-199쪽.

56) 김선숙, 『8세기 신라·일본의 정치외교관계』, 『한국 고대의 고고와 역사』, 학연문화사, 1997, 452쪽.

57) 이외에도 일본의 『風土記』에는 한반도 출신 도래인에 대한 신화가 실려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논고가 참조된다. 김화경, 『규슈(九州) 해안도서(海岸島嶼)와 한국 설화의 전파』, 『구주 해안도서와 동아시아』, 경인문화사, 2007.

세오녀 부부가 살았다. 어느날 연오가 바다에 가서 해조를 캐던 중에 갑자기 바위 하나(또는 물고기 한 마리)가 그를 싣고 일본으로 가버렸다. 나라 사람들이 그를 보고 말하기를, '이는 비상한 사람이다.'하고 곧 세위 왕으로 삼았다.(『日本帝記』를 보면 전후로 신라인으로서 왕이 된 사람이 없으니 이는 곧 邊邑의 小王으로서 참왕이 아니다.) 세오는 남편이 돌아오지 않는 것을 괴로히 여겨 나가 찾다가 남편의 벗어 놓은 신발을 발견하고 그 바위에 올라가니 바위가 또한 예전처럼 싣고 갔다. (생략)(『三國遺事』延烏郎細烏女)

먼저 『日本書紀』에 나오는 신라왕자 아메노히보코(天日槍)는 『古事記』에도 天之日矛라는 이름으로 등장한다.⁵⁸⁾ 그런데 그의 실존여부에 대해서는 대체로 신라왕자로서의 그의 도일을 인정하기보다는 그를 제사지내는 집단 또는 신라계집단의 도일을 의미하는 정도로 보고 있다.⁵⁹⁾ 따라서 아메노히보코에 대한 기사는 후대에 꾸며진 이야기로서 진·변한제국시절 정세변화에 따라 한반도 남부로부터 일본열도로 건너간 사람 또는 집단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역사적 사실에 가깝다.⁶⁰⁾

다음으로 『삼국유사』의 연오랑세오녀에 대한 기사 역시 한반도 남부에서 일본열도로 건너간 사람들에 의해 새로운 왕국이 세워졌던 사실을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된다. 이는 고고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데, 일본의 큐슈나 혼슈지역에는 한반도 관련 유적과 유물들이 매우 많다.⁶¹⁾ 그 가운데에서도 특히 주목되는 사실은 일본의 북부 큐슈에서는 한반도 남부에서 전개된 논농사와 더불어 환호취락이 출현한 바 있으며⁶²⁾ 혼슈의 서단인 야마구치현에서는 철기의 파편이나 한반도

58) 『古事記』應神天皇, “又昔有新羅國王之子 名謂天之日矛 是人參渡來者 (……)”

59) 김현구 외 3인 공저, 『일본서기 한국관계기사 연구(1)』, 일지사, 2002, 42-50쪽.

60) 김선숙, 앞의 논문, 2010, 16쪽.

61) 김선숙, 앞의 논문, 2010, 25-30쪽.

62) 정한덕, 앞의 책, 학연문화사, 2002, 190-196쪽.

이주민들이 구축한 城이 발견된 바 있다. 비록 성의 축성연대가 기원 후 2세기에서 3세기대로서 약간 후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적어도 한반도 이주민들에 의한 거주공간의 확보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나라(國)의 건설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⁶³⁾

탈해는 사로국 초기시절 다른 지역에서 건너온 소위 이주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해는 토착주민들과 큰 마찰없이 정착할 수 있었다. 그러한 배경에는 그의 일행이 진·변한인과의 언어나 의복 등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었거나,⁶⁴⁾ 왜와 근접한 지역에 사는 한인남녀가 왜와 가깝게 문신을 한다는 점⁶⁵⁾에서 왜의 문화에 대한 거부감 내지 배타성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탈해는 진한 아진포에 오기 전 김해 가락국의 수로왕과 왕위쟁탈전을 벌인 일이 있었다. 더구나 그는 경주지역에 들어와서 그곳에 거주하기 위한 계획으로 몰래 숫돌과 솥을 숨기고 자신이 대장장이라면서 잠시 이웃마을에 나갔다가 역시 왜의 이주민인 호공으로부터 자신의 조상집을 빼앗겼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의 배경에는 탈해의 가게가 본래 수로 일행과 마찬가지로 철을 다루는 집단으로서 북쪽지역에서 내려와⁶⁶⁾ 한반도 남부지역에 거주하다가 기원전 1세기 무렵 왜의 지역으로 이주하여 제철기술을 앞세워 그곳에서 지배층을 형성한 유동적인 정세변화와 무관하지 않다.⁶⁷⁾

63) 上田正昭·森浩一·山田宗隆, 『日本古代史』, 筑摩書房, 1980, 27쪽; 김석형, 『고대 한일관계사』, 한마당, 1990, 116쪽.

64) 『三國志』魏書 烏丸鮮卑東夷傳 弁辰條, “與辰韓雜居 亦有城郭衣服居處 與辰韓同 言語法俗相似 (……)”

65) 『後漢書』東夷列傳 韓條, “(……) 弁辰在辰韓之南 亦有二國 其南亦與倭接 (……) 其國近倭 故頗有文身者 (……)”; 『三國志』魏書 烏丸鮮卑東夷傳 弁辰條, “男女近倭亦文身”

66) 천관우는 탈해를 북방계 冶匠長으로 이해한 바 있다. (앞의 책, 1989, 281쪽)

67) 소제영은 탈해를 신라초기 왜지방에 가서 머물던 신라계 인물로 보았다. 호공 역시 탈해와 마찬가지로 왜지에 있던 신라계 인물로 추정하였다. 사후에 신라의 호국신으로 모셔진 탈해가 신라인에게 적개심과 경계심을 주는 왜인일리가 없다는

이는 일본열도에 철이 등장하던 시기와 거의 맞물려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즉, 야요이시대 초·중기인 기원전 1세기 무렵 한반도남부 지역과 가까운 북부 큐슈지역에 처음으로 철기가 유입되어 철제 도구를 제작하였는데 銅戈의 형태를 띤 철제 무기였다고 한다.⁶⁸⁾ 야요이시대 철기에는 두 계통이 있는데 하나는 중국 전국시대 중원의 燕지역에 생겨난 주조철기문화이고 다른 하나는 같은 시대의 중국 강남, 楚의 단조철기문화이다. 한반도에서 한사군 설치 이전의 철제품은 주조품이 주인데 중국의 전국시대 연나라와의 관계로 인해 철기사용이 시작되었다. 부산시 내성유적의 단야공방에서 철괴와 야요이 중기 초의 외계토기가 출토된 바 있어 변진의 철산지인 한반도 남부의 철이 일본에 보급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북부 큐슈의 마가리다(二丈町 曲り田)유적의 판상철부, 요녕식동검의 파편을 재가공한 동끝·동촉·철부가 나온 이마가다(津屋崎町 今川)유적, 구마모토현의 사이토야마(天水町 齊藤山)의 철부, 북큐슈시의 오사유기(長行)유적 출토의 주조철부 등은 조몽 만기 후반에서 이다츠케 1기식의 것인데 일본학계에서는 도래인이 전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⁶⁹⁾

탈해가 자기 나라를 떠나 신라로 들어온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다만 사료상에서는 설화적인 내용으로 기술하고 있는데 당시 건국 초기라는 신라의 정세라든가 그의 정치적 행보에 비추어볼

것이다.(앞의 논문, 1979, 13-15쪽.) 필자 역시 사료상에서 탈해에 대해 호공과 달리 왜인이라 하지 않은 점이나 철과 관련시킨 점 등으로 미루어볼 때 필자 그의 가계가 한반도에 근거를 둔 것이라고 판단된다. 다만 호공의 경우는 탈해와 달리 사료상에서 왜인으로 단정하였고 당시 한반도와 일본열도 諸國들의 건국상황이나 주민이동 등의 정세로 볼 때 왜인의 이주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도 없다. 그리고 진한시절 일본열도에 존재하는 수십개 혹은 수백개의 여러 나라가 모두 신라를 비롯한 한반도남부지역 국가들과 적대적인 관계이거나 경계할만한 대상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다.

68) 上田正昭·森浩一·山田宗睦, 앞의 책, 1980, 29쪽.

69) 정한덕, 앞의 책, 2002, 204-206쪽.

때 그는 자국내에서의 권력쟁탈이나 정치적 탄압을 피해 연고가 있는 한반도 남부지역으로 도망하여 들어왔을 개연성이 있다.⁷⁰⁾ 일본열도 내 각국의 정치적 변화는 후한의 환영간(146-188)에 왜국에서 큰 난이 벌어진 사례⁷¹⁾가 있듯이 영역확장을 위한 분쟁 또는 전쟁이 각 나라간에 전개되면서 약소국은 흡수·통합되어 2세기말에는 약 30여개가 존립해 있었다. 이는 철을 중심으로 한 물자의 확보·배분·유통을 둘러싸고 지역간 또는 집단간의 계열화와 통합이 진전되었고 후한 왕조의 권위를 배경으로 정치질서를 유지함으로써 집단내에서 지배적인 지위의 보수와 철을 중심으로 한 광역유통망의 안정된 유지를 시도하였다.⁷²⁾ 비록 탈해가 생존한 시기보다 1세기 뒤의 사건이라 하더라도 지배층내의 세력다툼과 같은 정치적 상황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게 매우 치열했을 것이다.

탈해는 결국 62세라는 고령의 나이에 기원후 57년경 왕좌를 차지하는데 성공하였다.⁷³⁾ 이처럼 그가 이방인이며 많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탈해 자신의 몇몇 측근들과 함께 왕국을 탈출해서 사료국에 들어와 자신들이 보유한 제철 기술을 통해 점차 세력을 형성하여 명성을 얻고 사료국사회에 잘 적응하였기 때문인데, 그의 정치력은 물론 남해왕의 사위로서 왕실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⁷⁴⁾이라고 생각된다.⁷⁵⁾ 아울러 그의 선조가 동북아의 급격한 정세

70) 김선숙, 앞의 논문, 2010, 15쪽.

71) 『後漢書』東夷列傳 倭條, “桓靈間 倭國大亂 更相攻伐 歷年無主 (……)”

72) 정한덕, 앞의 책, 2002, 197쪽.

73) 『三國史記』新羅本紀 脫解尼師今條, “立 一云吐解 時年六十二 姓昔 妃阿孝夫人 (……)”

74) 『三國史記』新羅本紀 南解次次雄條, “五年 春正月 王聞脫解之賢 以長女妻之”; “七年 秋七月 以脫解爲大輔 委以軍國政事”

75) 이종욱은 석탈해가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박씨왕족이 유리왕대에 이웃 소국을 정복하여 나가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정치적인 실력자와 왕실 세력의 확대가 필요하게 되자 당시 이주민이면서 정치적 실력을 갖추고 있었던 석탈해와 연맹을 맺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新羅上代王位繼承研究』, 영남대학교출

변화⁷⁶⁾로 인해 고조선이나 부여, 한사군 등이 자리한 북쪽지역에서 한반도 남부지역 내지 진·변한지역으로 남하하여 살다가 기원전 1세 기무렵에 일본열도로 건너가 그곳에서 소국을 형성하며 살았던 정치적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⁷⁷⁾

IV. 맺음말

지금까지 신라 탈해왕의 출생지와 이주배경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주지하듯이 탈해는 신라 초기인 진한의 사로국 시절 제4대왕으로서 등극한 인물이다. 그런데 탈해는 사로국에서 태어난 토착인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 출생하여 이주한 소위 외래인이다. 즉, 탈해는 왜의 동북쪽 1천리에 위치한 용성국에서 태어나 바다를 건너 가락국 김해지역을 경유하여 사로국 경주지역에 이르렀던 것이다. 탈해 일행이 거주지역에서 배를 타고 가장 먼저 김해의 가락국을 경유하고 난 후 진한 아진포에 이르렀다는 사실은 이들이 해류를 타고 북쪽으로 바다를 향해하여 한반도 남부지역에 이르렀다는 것이 되기때문에 해상교통로 상 그 남쪽에 있는 일본의 대마도를 비롯한 큐슈나 혼슈 등지에서 출

판부, 1980, 59-60쪽) 이형우는 탈해집단이 해로를 따라 남하한 북방대륙계의 야철족으로서 뚜렷한 정치세력이 존재하지 않았던 동해안지역에 정착하여 그곳에서 어로생활을 하며 그 영역을 내륙으로 넓혀 나가 당시 사로국의 막강한 정치적 실력자였던 호공세력기반을 흡수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제2장 사로국의 형성』, 『신라초기국가성장사연구』, 영남대출판부, 2000, 53-69쪽) 장창은은 석탈해가 박씨왕대에 왕위에 오를 수 있었던 배경에 대해 박씨족의 분기와 그에 따른 분열로서 호공세력과의 결탁에 주목한 바 있다. (앞의 논문, 2004, 48~50쪽)

76) 김선숙, 앞의 논문, 2010, 9-11쪽.

77) 이종욱은 탈해가 원래 살던 곳을 알 수 없지만 그가 경주로 이주하여 오기 전에 이미 국가를 다스릴만한 일정한 정치적 역량이 있었다고 본다. (앞의 책, 1980, 57쪽)

발했을 가능성이 있다. 만일 탈해의 출생지가 한반도와 가까운 동해 가운데에 있었다면 굳이 왜국을 기점으로 그 나라의 위치를 설정하진 않았을 것이다. 이는 한반도보다는 일본열도가 좀더 가깝거나 적어도 일본열도에 소재했다는 것을 의미하며 당시 신라와 접촉한 일본열도의 소국 중에 잘 알려진 세력을 왜나 왜국으로 인식하고 이를 기준으로 삼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당시의 왜국은 왜노국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탈해의 출생지는 비록 구체적인 지역을 밝히긴 힘들지만 노국이 위치한 지점에서 동북 1천리로 현재의 일본 혼슈지역에 위치한 나라의 하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탈해의 출생국은 일본열도 내에 존재하던 수백개의 소국 중의 하나로서 국가로서의 존재시기가 짧고 그다지 두각을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에 일본의 역사서에서 찾아볼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연유로 인해 『삼국유사』 등의 후대의 사서에서 탈해의 출생국을 여러 가지로 기술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신라의 건국 초기인 기원전 1세기대에는 한반도와 일본열도에서 소국들의 건국과 소멸과정이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인적이 동도 규모나 시기에 상관없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 탈해는 태어난 곳을 떠나 진한 아진포에 도착했는데 이곳에 오기 전 그는 김해 가락국의 수로왕과 왕위쟁탈전을 벌이다가 실패하여 도망쳐 온 일이 있다. 그는 경주지역에 들어온 뒤 이곳에 정착하기 위해 이에 대한 계책으로 몰래 솥돌과 솥을 숨기고 자신이 대장장이라면서 잠시 이웃마을에 나갔다가 역시 왜의 이주민인 호공으로부터 자신의 조상 집을 빼앗겼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한다. 그가 그러한 주장을 하게 된 배경에는 굳이 호공의 집이 아니더라도 실제로 탈해의 가게가 본래 수로 일행과 마찬가지로 철을 다루는 집단으로서 북쪽지역에서 내려와 한반도 남부지역에 거주하다가 기원전 1세기 무렵 왜의 지역으로 이주하여 제철기술을 앞세워 그곳에서 지배층을 형성한 유동적인 정

세변화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가 자기 나라를 떠나 신라로 들어온 이유에 대해 사료상에서는 비록 설화적인 내용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당시 건국 초기라는 신라의 정세라든가 그의 정치적 행보에 비추어볼 때 그가 자국내에서의 권력 쟁탈이나 정치적 탄압을 피해 연고가 있는 신라로 도망하여 들어왔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일본열도내 각국의 정치적 변화는 후한 桓靈間(146-188)에 왜국에서 큰 난이 벌어진 사례가 있듯이 탈해가 생존한 시기에도 지배층내의 세력다툼과 같은 정치적 상황 역시 이와 크게 다르지 않게 매우 치열했을 것이다.

탈해는 사로국 초기시절에 이주민이면서 62세라는 고령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왕위에 오를 수 있었다. 그러한 배경에는 그의 일행이 문화적으로 진·변한인과도 언어나 의복 등에 있어서 별 차이가 없었거나, 아니면 왜와 근접한 지역에 사는 한인남녀가 왜와 가깝게 문신을 한다는 점에서 왜의 문화에 대한 거부감 내지 배타성이 없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이는 그가 몇몇 측근들과 함께 왕국을 탈출하여 신라에 들어왔고 자신이 보유한 제철기술을 통해 점차 세력을 형성하여 명성을 얻으며 신라사회에 잘 적응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그의 정치력은 물론 남해왕의 사위로서 왕실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그의 선조가 동북아의 급격한 정세변화로 인해 고조 선이나 부여, 한사군 등이 자리한 북쪽지역에서 한반도 남부지역 내지 진·변한지역으로 남하하여 살다가 기원전 1세기무렵에 일본열도로 건너가 그곳에서 소국을 형성하며 살았던 정치적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을 것이다.

논문투고일: 2011.10.27 논문심사완료일: 2011.11.24 게재확정일: 2011.12.19

참고문헌

1. 史料

『三國史記』·『三國遺事』·『史記』·『漢書』·『尙書』·『後漢書』·『三國志』·『晉書』·『古事記』·『日本書紀』

2. 論文

김선숙, 「古代史料上에 나타난 韓半島와 日本列島 居住民의 실체 및 상호인식」, 『대동문화연구』 67, 대동문화연구원, 2009.

김선숙, 「上古時期 韓半島와 日本列島間 주민이동 및 교류양상에 관한 검토」, 『한국학연구』 34,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10.

金烈圭, 「脫解 傳承考」, 『金載元博士回甲紀念論叢』, 을유문화사, 1969.

金在鵬, 「脫解攷」, 『朝鮮學報』 56, 1970.

文昌魯, 「『三國志』韓傳의 ‘辰王’에 대한 理解方向」, 『韓國學論叢』 26, 국민대학교한국학연구소, 2003.

문창로, 「신라와 낙랑의 관계」, 『한국고대사연구』 34, 한국고대사학회, 2004.

蘇在英, 「三國遺事의 外來者 論攷-瓠公脫解說話의 경우」, 『金亨奎博士頌壽紀念論叢』, 1979.

尹徹重, 「脫解神話의 研究」, 성균관대학교대학원 국어국문학과 박사학위논문, 1987.

윤철중, 「달해왕의 도래지 ‘아진포’의 위치변증」, 『백산학보』 45, 백산학회, 1995.

이부오, 「일제강점기 신라사 사료비판의 전개」, 『2009년 신라사학회 추계학술대회 - 일제강점기 일본인 학자의 신라사 연구에 대한 검토-』, 2009.

이현혜, 「沃沮의 기원과 문화 성격에 대한 고찰」, 『한국상고사학보』 70, 2010.

장창은, 「신라 박씨왕실의 분기와 석씨족의 집권과정」, 『신라사학보』 창간호, 신라사학회, 2004.

金在鵬, 「脫解攷」, 『朝鮮學報』 56, 1970.

3. 단행본

姜仁求, 『古墳研究』, 학연문화사, 2000.

강종훈, 「『삼국사기』신라본기의 上古紀年 검토」, 『신라상고사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2000.

- 김두진, 「新羅 脫解說話의 형성기반」, 『한국고대의 건국신화와 제의』, 일조각, 1999.
- 김수태, 「3세기 중후반 백제의 발전과 馬韓」, 『마한사 연구』, 충남대학교 출판부, 1998.
- 김선숙, 「8세기 신라·일본의 정치외교관계」, 『한국 고대의 고고와 역사』, 학연문화사, 1997.
- 김석형, 『고대한일관계사』, 한마당, 1990.
- 김철준, 「신라 上古世와 그 紀年」, 『한국고대사회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1990.
- 김현구 외 3인 공저, 『일본서기 한국관계기사 연구(Ⅰ)』, 일지사, 2002.
- 백승충, 「변한의 성립과 발전」, 『삼한의 사회와 문화』, 신서원, 1995.
- 선석열, 『신라국가성립과정연구』, 해안, 2001.
- 李丙燾, 『韓國古代史研究』, 박영사, 1976.
- 李鍾旭, 『新羅上代王位繼承研究』, 영남대학교출판부, 1980.
- 李賢惠, 『三韓社會形成過程研究』, 일조각, 1984.
- 이형우, 『신라초기국가성장사연구』, 영남대출판부, 2000.
- 윤명철, 『한국해양사』, 학연문화사, 2003.
- 정진술, 『한국의 고대 해상교통로』, 한국해양전략연구소, 2009.
- 정한덕, 『일본의 고고학』, 학연문화사, 2002.
- 千寬宇, 『고조선사삼한사연구』, 일조각, 1989.
- _____, 『加耶史研究』, 일조각, 1991.
- 三品彰英, 『日鮮神話傳説の研究』, 柳原書店, 1943.
- 上田正昭·森浩一·山田宗睦, 『日本古代史』, 筑摩書房, 1980.
- 寶賀壽男, 『神功皇后と天日矛の傳承』, 法令出版社, 2008.

ABSTRACT

The Birthplace of King *Tarhae* and the Background of His Immigration to *Silla*

Kim, Sun-Sook*

It was very fluid and unstable for the political situation of many countries to the Manchuria and the Korean Peninsula of the before and after in the Christian era. That was frequent the diplomacy collision in internation relation with fluctions in domestic politics, and then occured the established country by means of natives or people coming from the outside.

The Silla was starting from the constructing a nation of Saro(斯盧國) by means of people coming from the outside as a member of Jinhan(辰韓). Tarhae was born in the Yongsungguk(龍城國) being situated at the northeastern thousand of Wa(倭) as a outsider. He arrived in the south of the Korean Peninsula taking an ocean current on the north. Accordingly, he is possible to have started at the Kyushu being located in the south.

It is possible for Tarhae's family line to have made at the ruling class with the advanced technology the head of emigrating previously to the region of Wa as a group working iron originally. He was able to accede to the throne in spite of his great age as an alien his kingdom. It is possible that he well adapted himself to the society of the Silla gradually gaining influence and achiving fame with an

* The Accademy of Korean Studies, 1997-sun@hanmail.net

iron-manufacturing technology coming in the Silla after leaving his kingdom.

주제어 : 탈해, 삼국유사, 용성국, 다파나국, 사로국, 왜, 동북 1천리
Keyword : King Tarhae, a nation of Saro, Yongsungguk, Wa, the northeastern thousand